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2> 활동과 활줄

활동과 활줄이라는 소재목을 대하니 생 각하는 도반이 있다. 선방을 오래 다닌 출 통한 스님인데 요즘은 전복 입식 어느 산 골짜기 조그만 절에 묻혀 살고 있다. 경이 나 어록을 보는 그 스님의 안목은 대단해,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강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워 초심자들이 배우는 강원 과정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 나이 그 법랍에 선원장 소임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 데,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 고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한 그 도반은 나한테는 어떤 선지식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길ियो 교는 차근차근 돌아가는 길이다. 선과 교를 활동과 활줄에 비유한 <선가귀 감> 1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諸佛說弓 祖師說絃 佛說無碍之法 方歸一味 拂此一味之迹 方現祖師所示一心 故云 庭前栢樹子話 龍藏所未有底

모든 부처님께서는 활동처럼 말씀하시 고 조사 스님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의 뜻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결림 없는 법'이 바야흐로 한맛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져야 조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를 '결림 없는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림 없는 법'이라고 하여 여기에 집착하면 이 또한 망상이 된다. 선과 교가 결림이 없으므로 한맛이 되나 이 자취마저 떨어져 내어야 조사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선가귀감> 9장에서 모든 법이 부정되어 끝내 비어 있는 자리를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이 필경공이야말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자 최종 목적지로서 실상을 드러내는 경지이다. 한 법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선종의 조조 달마 스님은 중국에 와서 불교의 대혁신을 일으켰다. 경전이나 글이 다 소용없다 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였고 계율, 염불, 다라니 모든 것을 다 부정하였다. 달마 스님은 오로지 "마음을 살피는 한 가지 일에 모든 수행이 들어있다(觀心一法 總攝諸行)"라고 하고, 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보면 부처님이 된다(直指人心 見性成佛)"고 하였다.

선·교 결림이 없어 한맛이나 자취마저 떨어져 내야 한마음

사 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라는 말은 옹공에 있는 대장경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활동'은 '구부러졌다'이고, '활 줄'은 '곧다'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팔만 대장경에서 구부러진 활동처럼 말씀하셨 다는 것은 좀 돌아가더라도 부처님의 마음 을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조사스님들이 선어록에서 활 줄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지지는 모두 거 두잡미하고 곧장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 깨 달음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교(敎)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그 것이 곧 깨달음이다. 선(禪)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깨달음이고 깨달음 을 성취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니 모두가 한 맛이다. 그러므로 선이든 교이든 서로가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투어 침체된 목은 불 교를 버리고 이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묻기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였다.

어떤 스님이 조주(778-897)에게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묻자,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다. 서산 스님은 이 대답이야말로 법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선(禪)의 근본 뜻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답은 옹공에 있는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계승으로 말한다.

魚行水濁 鳥飛毛落
고요한 연못에 고기가 노니 깨끗한 물이 흐러지고
푸르른 하늘에 새들이 나니 가벼운 깃털이 흩날리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말과 행동
배종훈 (bjh4372@hanmail.net)

1. "역시 부처님 말씀이야." (The man reads a book.)
2. "좋은 아침. 이야~ 좋은시 간에도 경을 읽 고 대단한걸." (He talks to his wife.)
3. "어? 부장님. 경이 어렵긴해도 읽어보면 말이 걸터라고요." (He talks to his boss.)
4. "3년째 꾸준히 경전을 읽는 다며? 대단해. 열심히 읽힌 공덕으로 나중에 좋겠어." (He talks to his friend.)
5. "아이고. 후~ 후~ 이 정도 가지고 멀요... 어?" (He talks to his wife.)
6. "하하하.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들어드릴 게요." (He talks to his mother.)
7. "미안, 미안. 아가 어디까지 이야기 했었지? 경전 이야기 없냐?" (He talks to his wife.)
8. "부장님도 대단하시네요. 저런 모습 보면 지나칠만큼 열심히 사시네요." (He talks to his boss.)
9. "그런가? 내가 하나만 말할게. 부처님 처럼 안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읽기만해서 되진 않아요." (He talks to his boss.)
10.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알아도 한가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The man's reflection.)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스님 옷은 왜 회색일까?

어려운 말부터 꺼낼까요? 초기불교 교단시절에 계율로 제정된 '회색법(灰色法)' 전통 때문입니다. '회색'은 말 그대로 검은 색에 가까운 짙은 '땅 색'입니다. 비구 스님들의 계율을 적은 <사분율>에서는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청·황·적·백·흑 등 5가지 원 색을 피해 청색과 흑색을 섞어 염색해 입어야 한다"고 적혀있지 요. 서로 다른 원색으로 인한 승단내 위화감을 경계하기 위해서였

지요. 푸른색과 검은 색을 혼합하면, 짙은 땅 색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색을 만들어 입기 힘들어, 아 예 솜을 갈아 풀뿔어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회색을 위한 염 색재료인 먹이나 솜을 주변에서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색에 담긴 뜻도 알아야하겠지요? 회색은 보통 색채학에서 우울이나 무기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승복에서 회 색의 의미는 다릅니다. '겸손'과 '절망'을 상징하거나, 또 회색은 중성색으로 어떤 색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색이 갖 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배경색이 됩니다. 원색의 화 려함을 피하면서 차분하고 겸손한 수행자의 품위를 그대로 읽 을 수 있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3강 혜능의 독특한 사상(四相) 강의

중생들을 발생의 차이가 아니라 무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혜능이, 사상(四相)이 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원어에 의존해서 해석했을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설명은 파격적이다. 그는 끈조처럼 사상을 '존재', '자아', '시간' 등의 추상적 철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의 '실제 삶'에서 보이는 중생 군상들의 수많은 아집과 고집들을, 그 '아상'의 양상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간다. 듣는 사람은 "이 거, 내 얘기 아니냐" 하고, 찬물을 맞은 듯, 잠 이 확 달아난다. 혜능의 목소리를 직접 들 는 호사를 누리기로 한다.

業, 諸執不忘, 是壽者相. 有四相即是衆生, 無四相即是佛.

"중생들에게 있어 불성은 다르지 않다*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다만 사상(四相)이 있어, 그래서 무어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사상이 있으면 즉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즉 부처이다. (어음을 헤매면 부 처가 중생이 되고, (진실을 깨달으면) 중생 은 부처이다*(중생과 부처의 종자는 따로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 매는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혜법'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1)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빼기고, 가문의 영광에 기대,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행태를 이름 하여 '아상(我相)'이라고 한다. 2) 인의예지신, 즉 유교 사회가 덕목 으로 치는 행동 몇 가지를 따라하는 걸 대 단하게 여겨, 주변 생명에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요컨대 내가 '유교 의 최고 덕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노라'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함당하 게 표하지 않는 행태를 '인상(人相)'이라고 한다. 이 뿐인가, 3) 좋은 일은 자기가 챙기 고, 나쁜 일은 남에게 떠맡기는 이런 인간

들을, '중생상(衆生相)'에 빠졌다고 하며, 4) (저대로 완전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자기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호오를 매기는 이 '대략 난감한(?)' 버릇을 '수자상(壽者相)'이라고 한다. 이 넷은 범부 중생들이 늘 빠 지는, 그리고 빠져 있는 함정이다. "이 마음의 폐단을 고쳐, 윤회의 고리를 끊었다고 발심한 수행자들에게도 그러나 또 다른 사상(四相)이 따라 틀고 있다. 1) 자기 밖과 자기 안을 한사코 갈라,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 이것을 아상(我相)이

사상에 두 세트가 있다고 했다. 범부들의 그것과 수행자들의 그것, 모두를 견어내도 록 수행하자! 너무나 리얼한 충고인데, 각 자 깊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요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범부들의 사상(四相) 1) 아상: "재신이나 학식, 가문을 믿고 다 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들 위세를 얻기 위해, 그 인정을 위한 가열한 투쟁이 우리네 삶의 질편한 일상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불교는 이

계 이런 유형이 많다. 범부들이 모두 부처 들이라, 누구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도덕을 앞세우고, 설 교로 들어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 들이 있다. 제법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상습적 태도가 자기가 남에게 실은 가장 나쁜 독이긴 쉽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니체의 말을 다 시 빌리면 '대지를 경멸하는' 자들이 변성 하도록 해서 안 된다. 3) 중생상: "좋은 일은 자신이 가지려 하

뿌리가 이것이다. 인간 내부의 무의식적, 자동 발휘적 습성으로 이 행동이 불타듯 치 열해질수록 마음의 안정은 흔들리고, 사회 의 건강도 훼손된다.

- 수행인의 사상 위의 범부들의 사상을 뿌리 뽑더라도 일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게도 또 다른 유형의 사상이 존재한다.

1) 아상: 수행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 직 나와 남의 구분이 있는 사람. 나는 수행 자니 높고, 너는 한심한 중생이라고 내리까 는 고약한 버릇"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불교의 근본을 망각한 위태로운 유형이다. 나는 수행자들의 수준을 이 병통 여부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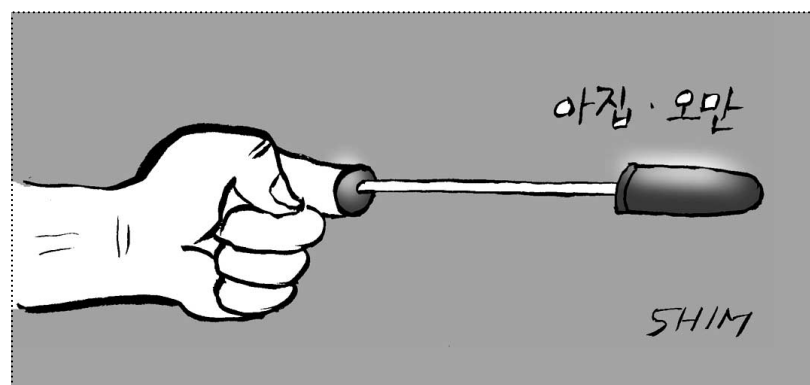
2) 인상: "규율은 내 속에 있다면서, 파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곧 부처'라는 말 에 취해, 술을 마시고, 색을 범하는 등 행동거 지를 함부로 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특히 돈 교의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3) 중생상: "자유, 아귀, 축생 등 천하고 고통스런 세계는 싫고, 오직 즐거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 고해의 땅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누군들 없으랴. 그러 나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 혜능은 말한다. "저 너머의 세상은 없다. 네가 밭 디디고 선 곳, 그곳이 전부이다."

4) 수자상: "오래 살기를 바라, 복을 닦 는 사람들로서 아직 집착이 그대로 남아 있 는 유형." *앞의 유형과는 달리, 이 땅에 아 주 눌러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역시 개뿔밖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가 보다. 수행자는 오고 감에 결림이 없어야 하고, 머물고 떠남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 다. '있으니 있고, 문득 없으니 없다'의 무 심(無心) 공부를 더 해 나가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간적 아집과 오만의 행태들



근원을, 니체의 말을 빌리면 권력의지를 뿌 리 뽑고자 한다. 돈교는 "네 자기 속에 그것 은 없다. 그리고 너는 그것 없이 완전하다" 고 조용히 말한다. "더 할 할 것은 없고, 그 저 이 마음을 쉬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2) 인상: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실 현하지만, 그 행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대체로, 도덕이나 종교가, 설교자들에게

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 우리 모두 과실과 열매는 즐기되, 거기 수 받되는 노력이나 희생은 회피하고자 한다. 그 습성을 뿌리 뽑거나, 최소한 유보하는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래야 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4) 수자상: "한 상황을 대면할 때, 그것을 자기 관습과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取舍)하 고 분별(分別)하는 것." *사상(四相)의 근본